

미래 표준인재를 찾는다. 2026 첨단산업 표준화 경진대회 개최

- AI·3D 프린트 등...대학생들, 첨단산업 표준화 아이디어 겨뤄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첨단산업 표준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표준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공융합형 표준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이다. 경진방식은 각자의 전공분야 기술을 표준화하는 과정과 결과 등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참가대학은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천대·국립공주대·국민대·세종대·극동대 등 5개 대학 10개 팀이다. 참가 팀들은 자신들의 전공 기술인 3D 프린팅 시공 공정, 자가치유 콘크리트 적용성 평가기준 등을 표준화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심사 결과 대상(산업통상부 장관상)은 “미래 모빌리티 적용을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VIPV 복합 품질 평가 표준(안)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국민대학교 Hot Potato팀이 차지했으며, 그 밖에도 최우수상·우수상·특별상 등 총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팀에는 표준화 우수사례 기관(또는 대학)과의 해외교류연수 기회가 부상으로 제공된다.

국가기술표준원 박종섭 표준정책국장은 “첨단기술 혁신과 글로벌 기술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전공 지식과 표준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인재가 기업 현장과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융합형 표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배진한 (043-870-5380)
		담당자	사무관	강태우 (043-870-5385)

참고

「2026 첨단산업 표준화 경진대회」 개요

- (일시/장소) '26.7.24.(금) 14시~18시 / SKY 31 컨벤션 (서울 송파구)
- (참석자) “전공+표준” 융합강좌 개설 사업* 참여학생 및 지도교수,
(신청팀 : 5개 대학**, 10팀), 국표원, 표준협회 등 약 80 명
- * 가천대 학교(의공학), 국립공주대 학교(전기전자제어공학), 국민대 학교(신소재공학), 세종대 학교(건설환경공학), 극동대 학교(항공모빌리티학) 등 5개교
- (대회주제) 참여대학 전공기술 분야와 표준이 결합된 주제 (자율주제)

소속	팀명	발표주제
세종대학교	polaris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응한 북극 인프라 건설 기준 개선방향 연구
세종대학교	불사조크리트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건설 현장 적용성 평가기준 표준화 방안
세종대학교	새콘달콘	달 콘크리트 3D 프린팅 시공 공정 표준화
국민대학교	five guys	할로크로미즘 기반 스마트 창상피복재 성능평가 표준 제안
국민대학교	KUME	광열 변환 마이크로캡슐 기반 AI 연동 대기 제어 시스템 운용 표준 보고서
국민대학교	Hot Potato	미래 모빌리티 적용을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VIPV 광·열·진동(PHV) 복합 품질 평가 표준(안) 개발
가천대학교	HEMA	구간 기울기 계수 모델을 활용한 광범위 세포 수 및 농도 측정 표준 가이드라인
가천대학교	Hyrax	PPG MAP 기반 웨어러블 광용적맥파 측정 부위 평가를 위한 표준 지표 제안
국립공주대학교	무선의민족	전력 용량별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동향 분석: 일상생활 속 NFC WLC · Qi · Ki 표준 중심
극동대학교	FM	표준화의 중요성 : 항공기 소재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의 보장

- (운영) 사전 서류심사 진행 후 행사 당일 발표 심사 진행
- 팀별 10분 발표 및 5분 질의응답으로 발표평가 실시
- (심사) ❶서류심사(40)+❷발표심사(60) 진행
 - ❶ 서류심사의 항목은 △형식의 적절성 △내용의 충실성 △기여도
 - ❷ 발표심사의 항목은 △논리력·정확성 △질의응답 정확성 등 항목으로 구성
 - ※ 평가위원은 산·학·연 표준전문가 5명으로 구성
- (시상계획) 총 7팀 선정, 상장 수여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장관상 수상팀)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포상 / 수량	장관상 / 1점	국표원장상 / 2점	표준협회장상 / 2점	표준인증학회장상 / 1점 산기평원장상 / 1점